

1990년대 한국 여성시의 탈범주화 과정 연구

— 나희덕, 김언희 시를 중심으로 —

신용목(조선대 문예창작학과 조교수)

〈 목 차 〉

1. 서론
2. ‘식물’과 ‘사물’, 전이와 분리
 - 2.1. 몸의 확장과 존재의 삼투-나희덕의 시
 - 2.2. 몸의 절개와 분리의 전략-김언희의 시
3. 결론

국문초록

시의 계기들은 사회학적 과정으로 명료하게 해석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한다. 여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깊이 천착한 것이 자신들의 성 범주를 되려 강화한다는 비판이 일견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특정 범주에 대한 미학적 천착은 그 범주를 뚫고 나가곤 하는 것이다.

나희덕의 시는 모성성을 바탕으로 대지적 상상력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기표로 이해되었지만, 시 속에 나타난 관계들이 포함관계를 드러낸다기보다는 외적 요인을 폭력성에 저항하는 근원적 연대의 감각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한다. 그의 첫 시집의 표제에도 등장하는 ‘뿌리’가 삼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뒤섞임은 너와 나는 물론 삶과 죽음까지 서로의 농도를 교환한다. 끝없이 서로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존재의 규정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다.

김언희의 시가 가진 과장된 이미지는 섹슈얼리티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화자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사물화함으로써 감각적으

로 실체화되지 않는 세계의 허망함을 폭로한다. 그럼에도 그의 시가 대결의 선명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에 맞서는 개체를 물적 속성, 곧 사물의 구체성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투쟁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편 세계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이기도 하다.

주제어 : 여성시, 모성성, 섹슈얼리티, 범주, 탈범주

1. 서론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 긴장이 1980년대 한국현대시의 담론을 추동했다면, 1990년대 이른바 이념 아노미 이후 한국현대시와 그에 대한 논의는 모색과 반성을 거듭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부재한 상황은 다원주의적 상상력을 통해 시적 현실을 재구성하게 만들었는데, 역사를 향한 실천적 맥락은 욕망의 흐름으로, 정치경제적 모순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민중과 민족을 향한 호명은 대중과 세계화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다양성을 하나의 논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기호학 또한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다시 변곡점을 맞이해야 했다. 중심 혹은 권력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욕망의 흐름에 관한 관심은 그 기울기에 대한 점검으로 뒤바뀌었고, 문화에 대한 관심은 정치적 올바름(PC합)과 취향에 대한 존중으로, 대중과 세계화는 이제 문화예술 소비자의 권한에 대한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논의의 중심에 줄곧 ‘여성’ 혹은 ‘여성시’가 있다.¹⁾

1) 여기서 ‘여성’은 단순히 여성 화자 또는 여성 시인을 일컫는 것이 아니며 ‘여성시’ 역시 여성 시인이 쓴 시에 대해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성시에 대한 공통 감각이 형성된 만큼 자세한 구분은 불요해 보이나, 여성적 현실을 체험적으로 드

최근 한국현대시와 그 연구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은 시를 둘러싼 작업 전반에 대한 반성을 이끌며 문학사 서술 관점의 갱신까지도 요청하고 있다.²⁾ 실로 2000년대 이후 여성시에 대한 논의는 남성의 대타항으로서의 여성성으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이라고 할 만큼 여성시의 특질을 분류하는 연구³⁾와 더불어 여성시에 대한 비평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연구⁴⁾ 등이 주로 제출되었다. 이들의 성과를 통해 최근 한국현대시에서 여성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당대의 감수성을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⁵⁾ 이는 1987년 체

러내는 것으로서의 여성 혹은 여성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적 현실은 필연적으로 가부장제 하의 차별성에 의해 분별되며 나아가 그 현실에 대한 회의와 반동을 추구하는 과정을 내포한 것으로서의 현실이다.

- 2) 여성시 또는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한국현대시를 재해석하는 작업은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주요 문예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형편이다.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와 ‘미투(MeeToo)’ 운동 이후 문학장 내부에서 전개된 반성은 단순히 사건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한 문학적 규율 내지는 문학성 자체에 대한 재고를 동반하는 것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시문학사’ 서술과 그 관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그것이 현상 추수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연구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대표적으로 이경수는 ‘행위주체성’에 중점을 두고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을 고찰한 바 있다. 이경수,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 고찰」, 『여성문학연구』 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60-190면.
- 3)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주로 여성 시인들의 시적 특성을 개괄하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해원,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자연 표상의 양상과 의미-‘몸’의 표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07호, 한국어문학회, 351-382면; 김순아,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빈 몸’의 윤리와 감각화 방식: 이수명, 조용미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69-306면.
- 4) 여성 시인에 대한 분석보다는 여성성을 다루는 비평적 시각의 재점검을 요청하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 다음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서영인, 「1990년대 문학 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면; 임지연, 「‘여성문학’ 트리플-곤경에 처한 21세기 여성문학 비평」, 『여성문학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회, 2011, 103-132면.
- 5) 여성과 관련된 감수성을 최근 시들에게서 찾는 연구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김순아, 「2000년대 여성시에 나타난 ‘몸’의 전략화 양상-김이듬, 문혜진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2호, 한국문학회, 2012, 127-161면. 또한 여성혐오가 가진 내적 양상과 운동성을 고찰한 것으로 박상수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

제에 힘입은바 1990년대에 활발하게 전개된 페미니즘 논의⁶⁾의 한계를 파악하고 재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과정을 통해 상당 부분 그 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임지연은 “여성 없는 페미니즘의 이론적 가능성과 여성 없는 여성문학 혹은 탈여성문학의 현실적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타진한 결과”⁷⁾로 2000년대 여성문학을 정의하며, 1990년대 문학에 대해 정끝별,⁸⁾ 이기성⁹⁾ 등의 연구를 근거로 “자연과 여성에 대한 믿음이 가부장제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기존 여성성에 대한 전복이 남성중심적 시선을 모방하고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¹⁰⁾ 되묻는다. 1990년대 여성시가 내면화된 남성성 혹은 남성적 시선이 오히려 남성 지배를 반복하고 또 강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사례 중심으로 살핀 뒤 그 고찰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90년대 나희덕과 김선우는 여성 몸을 고유한 가치로 이상화했음에도, 유포피아적 자연과 등치시킴으로써 성 본질주의를 고착시켰다. 또한 대지모신적 여성 몸은 오히려 남성적 시선에 포획된 여성의 자기혐오로서, 젠더 불평등에 순응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김언희와 신현림은 섹슈얼리티를 통해 위반과 전복의 전략을 구사했지만, 남성/여성이라는 근대적 시스템을 보존함으로써 비판의 문제틀에 갇히게 되었다. 또한 사랑을 보수화함으로써 제한된 정치성에 머물렀다.¹¹⁾

다. 박상수, 「한국시의 남성성과 여성혐오의 재현 양상 연구-이소호, 『캣콜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3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5-33면.

- 6) 최근에 사용하는 ‘리부트’라는 말은 1990년대에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페미니즘 물결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7) 임지연, 「1990년대 여성시의 이상화된 판타지와 역설적 근대 주체 비판」, 『한국시학연구』 53호, 한국시학회, 2018, 90면.
- 8)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07-336면.
- 9) 이기성, 「망각의 언어와 정치적 몸의 탈환」,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름언덕, 2005, 212-235면.
- 10) 임지연, 앞의 글, 91-92면.

1990년대는 소위 여성시의 전성시대라 일컬어질 만큼 많은 여성 시인들이 각자의 방향으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인용 글에서 앞서 언급한 나희덕과 김선우가 이른바 모성성에 기반한 포용의 시 세계를 보여준다면, 뒤에 언급한 김언희와 신현림은 이른바 해체성에 기초한 단절의 시 세계¹²⁾를 보여주는데, 이를 양 극단으로 하여 다채로운 시인들이 포진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의 시는 남성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여성의 관점 아래 자신과 세계를 새롭게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여성의 몸과 감각을 통해 기성 논리를 굴절시키기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것도 사실이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도록 체화된 가부장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수적 시각을 견지했다는 임지연의 비판은 2000년대 이후 한국현대시의 여성에 관한 논의 지평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단단한 바탕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층 진전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한 시기의 특성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의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제출된 이론적 토대 속에서 면밀하게 점검하고 문맥 속에 미세하게 포진한 의미망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배제한 채, 현재를 규준 삼아 도달한 것과 도달하지 못한 것 혹은 이론 것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단정하여 분류하는 일은, 어쩌면 해당 시기 시적 성취를 다시 담론의 영역으로 회귀시켜 범주화하는 일일 수도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남성중심적 지배질서에 충격을 가하고 또 교란시키는 힘에 관한 언급 역시, 시가 가진 미학적 자질에 대한 다채로운 고찰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기대와 찬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공히 사회학적 해석을 통해 미학적 자질을 재단하는 외재비평의 위

11) 임지연, 앞의 글, 86면.

12) 정끝별은 1990년대 여성시인들의 시를 ‘꺼안음의 문체’를 보여주는 것(허수경, 나희덕, 박라연, 이진명 등의 시)과 ‘해체와 진복의 문체’를 보여주는 것(김정란, 김혜순, 박서원, 김언희, 이수명 등의 시)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다. 정끝별, 「여성주의 시 연구의 흐름과 쟁점」, 『오록의 노래』, 하늘연못, 2001, 95-112면.

13) 많은 연구자들이 비슷한 평가를 내렸지만 특히 김정남의 논의를 참고할 만하다. 김정남, 「90년대 여성 시인의 현실인식과 기법」, 『한국문예비평연구』 1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57-87면.

협성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임지연은 2000년대 여성시를 ‘탈여성문학’이라 지칭하며 “고정된 정체성을 해체하기 위한 급진적인 전략을 구사하면서 집단적 경계를 허무는 방법”적 선택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여성문학이라는 용어로는 여성적인 것들로 환원되지 않는 범주들”¹⁴⁾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탈여성성’이 현재 여성시가 도달한 미학적 성과라면,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여성시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감행된 탈범주화의 결과물일 것이다. 즉 시인 스스로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든, 사후적인 비판이나 반성 이전에 시가 그 장르적 역량을 통해 스스로를 갱신하고자 하는 내적 도전을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탈범주화(Decategorization)’는 범주화(categorization)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용어인 만큼 그 의미 또한 범주화를 통하면 선명해지는데, 사회구조적 분류 체계를 통해 개인을 특정한 집단에 예속시키는 것이 범주화라면, 탈범주화는 질서와 규범 등으로 구성된 권력 담론¹⁵⁾으로부터 개별자를 떼어내는 과정이자 개별자로서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시적 인식과 의미를 더 담론의 자장속으로 귀결시키는 방법론이 과잉한 것과 결여한 것을 더불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한국 현대시에서 ‘여성성’이 기성 질서의 범주에 머무른다는 진단에 일견 동의하며, 그러한 비판이 가진 이후 논의의 발전성과 확장성을 알면서도, 해당 비판을 탈범주화라는 연속적 과정을 통해 제점검하는 일이 필

14) 임지연, 앞의 글, 91면.

15) 주디스 버틀러는 ‘여성’을 구성하는 정체성 범주 해체를 역설하며, 이성애나 동성애 자체를 ‘권력 담론’의 부분으로 규정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던 그는 기호체계를 예로 들며 ‘호명’당함으로써 ‘여성’이 생물, 사회, 문화 구조적 젠더로 소환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여성 혹은 이성애, 가족 제도가 권력담론을 통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는 국가 정치에 종속된다고 말한다.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95-100면 참조. 주디스 버틀러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임옥희의 정리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문화적 우울과 불확실한 삶의 조건을 천착하는 철학자」, 『오늘의 문예비평』 56호, 오늘의문예비평, 2005, 248-278면.

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시 속에 드러난 어떤 사태를 단일한 정리 체계를 빌려 결정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호명의 차원이든 인식의 차원이든 유동성 속에서 끝없이 생성되고 또 변화하는 특질들을 세심하게 확인하는 작업의 축적을 통해서만 시는 그 전모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것이 남성중심주의 혹은 기성 체제와 질서에 포섭되기도 저항하기도 하며 이어져온 여성시를 온당하게 재구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성이 그러하듯 시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창작과 독서의 반복적 과정으로 구축된 행위의 산물이며, 사회와 문화의 맥락 속에서 변화하는 유동적 가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¹⁶⁾

2. ‘식물’과 ‘사물’, 전이와 분리

정끝별의 논의¹⁷⁾에 따르면 김언희는 박서원, 이수명 등과 함께 ‘해체와 전복의 문체’를 보여주는 시인이며 나희덕은 허수경, 이진명 등과 함께 ‘껴안음의 문체’를 보여주는 시인이다. 김언희, 나희덕과 함께 거명되는 시인들의 시에서도 탈범주화로 논의될 만한 요소를 추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대상을 확대할 경우 개별적 특징을 하나의 포괄적인 논의 속에 개괄하는 연구로만으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탈범주화의 세밀한 목록을 섬세하게 고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여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1990년대 여성시가 가진 스펙트럼의 양 극단을 보여준다고 판단한 두 명의 시인을 우선 대상으로 삼는다.

16) 이경수는 여성시문학사 기술 방법을 언급하며 ‘행위주체성(agency)’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경수, 앞의 글, 175면 참조. 주디스 버틀러가 말한 ‘행위주체성’은 “행위자(doer)를 선행적으로 가정하지 않고 행위를 통해서만 행위주체가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선행적으로 존재하는 주체를 상정하지 않는 행위의 작동원인이나 매개성, 혹은 행위를 통해 구성된 비본질적 주체성 개념을 의미한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8면, 352-357면 참조.

17) 정끝별, 앞의 글 참조.

둘은 같은 해인 1989년에 작품활동을 시작하여 1990년대에 왕성한 활동을 하며 각각 '우리 시단의 하나의 미적 충격'¹⁸⁾과 '자연의 무의식적 의지처럼 불가피한 생명을 향한 모성의 시'¹⁹⁾라는 추천사를 받으며 첫 시집을 상재했다. 이러한 찬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상반된 개성을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시인들인 만큼 김언희와 나희덕은 상대적으로 여성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많이 노출되었고 그만큼 당대성에 접근하는 거점으로 삼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²⁰⁾ 이 논문에서는 각각 그들의 첫 시집인 『트렁크』와 『뿌리에게』에 실린 시편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한국여성시의 탈범주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²¹⁾

2.1. 몸의 확장과 존재의 삼투-나희덕의 시

나희덕 시에 가해져 일반적인 해석으로 굳어진 '착하고 얌전하며 읽기 쉽다'²²⁾는 평은 한편 독자 소위를 일상화시킨 현대시의 세태에 대한 반성으로

18) 이승훈, 「해설」, 김언희 저, 『트렁크』, 세계사, 1995, 102면.

19) 정현준, 「해설」, 나희덕 저, 『뿌리에게』, 창비, 1991, 132면.

20) 나희덕과 김언희가 1990년대 여성시의 양 극단을 보여준다는 판단은 정끝별의 논의를 점검하는 과정을 통한 것이다. 정끝별 앞의 글 참조. 가령, 정끝별이 포용과 해체로 1990년대를 나눌 때, 전자에는 모성성의 초월성이 후자에는 섹슈얼리티의 전면화를 그 전략으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김선우와 허수경은 전자에 속하지만 섹슈얼리티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신현림과 박서원의 경우 후자로 분류되었지만 모성과 구원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그것이 미학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각자의 특성을 순도 높게 전개한 시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탈범주화 논의의 다채로운 적용 가능성까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21) 첫 시집을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간단하다. 첫 시집은 시인이 원하던 원치 않든 시인의 시 연구에 있어서 그 인식과 시적 변화를 추적하는 준거점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첫 시집 속에는 시 창작에 임하는 시인의 태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시적 인식을 비교적 선명하게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시집의 시를 문맥 속에 인용할 때는 시 제목과 페이지만을 명기함을 밝힌다.

22) 황현산, 「해설」, 나희덕 저, 『그 말이 있을 물들었다』, 민음사, 1997, 115면.

작동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에 충실한 가운데 여성적 미덕으로서 모성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이유로 작동하기도 한다. 임지연은 나희덕의 「어린 것」에 대하여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는 어머니에 정박”되어 그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느끼는 죄책감” 때문에 “여성의 자기보존(산을 오르는 행위)을 포기한다고 비판하였다.²³⁾ 말하자면 김언희 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여성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되었다면, 나희덕의 시가 주제적 측면에서 여성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디서 나왔을까 깊은 산길/ 갓 태어난 듯한 다람쥐새끼/물끄러미 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맑은 눈빛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고집할 수가 없다/ 세상의 모든 어린것들은/ 내 앞에 눈부신 꼬리를 쳐들고/ 나를 어머니라 부른다/ 괜히 가슴이 저릿저릿한 게/ 핑그르르 굳었던 젓이 돈다/ 젓이 차올라 겨드랑이까지 쨍해오면/ 지금쯤 내 어린 것은/ 얼마나 젓이 그리울까/ 울면서 젓을 짜버리던 생각이 문득 난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난만한 눈동자/ 너를 떠나서는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갈 수도 없다고/ 나는 오르던 산길을 내려오고 만다/ 하, 물웅덩이에는 무사한 송사리떼

— 나희덕, 「어린 것」 전문²⁴⁾

무한한 사랑으로 대변되는 모성성에 가미된 초월성은 그동안 여성성에 대한 관념적 수사를 전담해오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여성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로 작동하기도 했으나 “타고난 모성의 건강한 희생과 감싸안음”²⁵⁾은 돌봄 수행의 측면에서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젠더 규범을 여성성의 범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순응주의적인 면모가 나희덕 시의 주요 인상으로 읽히는 것은 희생과 포용을 신성한 것으로 돌려세움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여성의 가능성으로 돌려세우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

23) 임지연, 앞의 글, 94-95면 참조.

24) 나희덕, 『그 말이 앞을 물들였다』, 창비, 1994, 22면.

25) 김기택, 「해설」, 앞의 책, 100면.

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 인상만으로 편편의 시가 가지고 있는 내적 의미망 전체를 포괄하는 방법론은 오히려 시의 의미를 한정하곤 한다.²⁶⁾ 더불어 대지와 여성을 결합하여 에코페미니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긍정적인 평가²⁷⁾에 접목시키려는 시도 역시 나희덕 시의 특징을 결정론적 과정 속에 포함시킨다는 측면에서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시인의 인식이 순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의 언어는 인식이 미처 포괄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차원까지 포함하며 자신의 의미망을 확장시키기 마련이다. 예컨대, 산을 오르다가 어린 새끼들을 보고 산길을 내려오는 과정을, 산을 오르는 행위를 포기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자기 보존을 포기하는 것과 등치한다면, 애초에 산을 오르고자 했던 욕망이 자리할 바탕은 사라지고 만다. 말하자면 「어린 것」의 시적 출발은 산 오르기를 시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갈 수도 없다고/ 나는 오르던 산길을 내려오고 만다”고 했을 때, 반복되는 “갈 수 없다고”와 “갈 수도 없다고”에서 어미 “~도”의 등장이 중층적인 의미를 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든다. 뒤이어 “내려오고 만다”에서 “만다”는 한정적 술어 역시 자신의 처지에 대한 각성을 동반한다는 점 역시 지적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시의 화자의 행위는 산을 내려오는 것이지만, 그것은 순응으로 단정되기 보다는 행위 주체가 그것을 각성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내적 인식의 갈등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어서/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네 숨결 처음 대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밭

26) 여기서는 줄리아 크리스테바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 크리스테바는 모성성이 주체와 객체,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무는 힘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우월하게 여겨졌던 의식의 힘보다 앞서는 것으로 존재의 경계를 위반하는 힘이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4-25면; 고갑희, 「시적 혁명과 경계선의 철학-줄리아 크리스테바」, 『페미니즘』,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민음사, 2000, 212-214면 참조.

27) 김순아, 「90년대 이후 여성시에 나타난 여성의 몸과 전복의 전략」, 『한어문교육』 29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3, 257면 참조.

은 피 뽑아 네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던/ 아 나의 사랑을// 먼우물 앞에서
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눈부셔 잘 부스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가려무나

— 나희덕, 「뿌리에게」 전문²⁸⁾

우리는 씹어가는 참나무뎌,/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쾌역의 골짜기
에서/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함께 씹어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
서 우리를 흔들고/ 이윽고 잠자던 흙씨들 일어나/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황홀한 음지의 꽃이어/ 우리는 서서히 씹어가지만/ 너는 소
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오, 버섯이어/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
리의 몸을/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나희덕, 「음지의 꽃」 전문²⁹⁾

그의 등단작이자 첫 시집 표제작의 핵심 키워드인 ‘뿌리’는 ‘연한 흙’으로
대리되는 모성성의 통로로 이해된다. 실로 「뿌리에게」는 사랑과 희생의 메타
포로 읽히는데, 이는 때로 “절대불가침의 자리에 있으므로 비로소 존재가 확
인되는 자리”, 그리고 “남성이니 여성이니 구분을 초월한 한 인격체로서의
완전하고 숭고한 한 존재”³⁰⁾라는 표현을 통해 초월적 세계관에 편입되곤 한
다. 이때 모성성을 여성시의 새로운 지평으로 특화하는 것은, 그 의도와 무
관하게 나희덕 시가 지닌 억압과 거절의 함의를 삭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도 한다. 앞서 말한바 나희덕 시의 모성성은 다만 전통적 개념의 희생에만
의지(依地)하는 것이 아니라 대결 의식에 기인한 의지(意志)를 내포하기도
한다.

「음지의 꽃」에도 ‘대지’를 배경으로 한 ‘뿌리’의 메타포가 그대로 등장한

28) 나희덕, 『뿌리에게』, 창비, 1991, 8면.

29) 나희덕, 앞의 책, 13면.

30) 이경영, 「한국 여성시의 특징적 몇 국면과 미래시학의 방향-페미니즘 관점에서
1990년대 이후 여성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102면.

다. 흔히 ‘대지’의 등장만으로 읽는 이들은 그 대지의 뜻을 결정해버린다. 그 때 대지가 ‘벌목’ 이후의 현상이며, 그 자리를 메운 ‘버섯’은 ‘뿌리 없음’을 감당하는 개체라는 사실은 부수적인 것이 되고 만다. 화자가 버섯의 생명성을 두고 “황홀한 음지의 꽃”이라고 칭하는 것을 텅 빈 수사로 보지 않는다면, ‘대지’와 ‘뿌리’, ‘버섯’의 성격에 섬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여기에는 ‘벌목’이라는 외적 요인이 등장하는데, 그에 맞서는 버섯은 ‘독기’를 속성으로 가진다. 이때 독기는 물론 버섯의 독성에서부터 가져온 것이겠지만, ‘참나무떼’에게 전이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달리 말해, ‘폐역’의 흔적으로 누운 참나무떼인 ‘우리’들은 ‘버섯이 피어나는 현장’이 되지만, 이는 연한 흙의 그것처럼 스스로를 증여하는 식의 희생 과정을 드러낸다기보다는 생명성을 빼앗긴 이후의 역할에 대한 자각이자 연대를 통한 극복 가능성을 드러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버섯의 독기가 “산비탈을 구르는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채운다는 구절에 이르면, 이 시는 ‘외적 요인’에 맞서는 연대의 감각을 전면화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희덕의 시에는 “바람이 불쑥 칼날을 내어미는 날에도/ 바람에 눈이 쫓린 나무들이 되어”(「비가」, 12면)라는 구절, “포크레인이 걸어들어와 우리의 꿈자리마저 덮치네”(「우리는 들에서 떠났네」, 16면)라는 구절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로 명명된 공동체의 생명성을 훼손시키는 외적 요인들은 비교적 자주 노출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통칭되는 모성성이 깃드는 현장으로서의 삶이 가진 역경으로 단순화되기 힘든 요소들로 가득하다. “잠든 산들아/ 너희 가슴 속 숨겨진 무덤이 열리는구나/ 우리는 거기서 두 발로 걸어나와/ 잎새 하나에 깃들어 말하리라”(「나뭇잎 하나로 이 세상을」, 74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절망 이후의 모색과 죽음 이후의 전망을 지속하는 자리를 만드는 바탕으로 작동된다. 나희덕의 모성성은 폭력적 현실에 맞서기 위한 절망과 희망, 삶과 죽음이 만나는 결속과 연대의 자리인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나희덕 시의 ‘뿌리’는 내부와 외부 혹은 생명과 비생명이 서로 뒤섞이는 ‘삼투’의 기능을 획득한다.

시 「뿌리에게」에서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라고 말할 때, 너와 나의 관계가 꼭 포함관계로만 읽히지 않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나’는 “잘 갈구어진 연한 흙”이고 그래서 너에게 나를 흘려보내지만, ‘너’는 ‘나의 뿌리’ 곧 나의 근원을 형성하는 무언가이기도 하다. 그 근원적 힘이 사랑과 포용과 연대의 감각이라는 점은 더불어 인용한 「음지의 꽃」에서 ‘별목 된 참나무떼’와 ‘독버섯’의 관계에서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미묘한 뒤섞임이 뿌리와 관계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뿌리는 삼투적 과정을 통해 외부의 요인들을 내부로 흡수한다. 삼투가 서로 다른 농도의 뒤섞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자(母子)의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것이기도 한데, 더 긴요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규정성 아래 무언가를 결정하고 있다기보다는, 생명의 현장으로서 부단히 생과 사를 거듭하는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식물성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을 등치하고 흙과 나무를 맞세우는 것이 비유의 선명함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이 과정을 통해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영위되는 생명의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식물은 대지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는 순간 각자 자신의 의의를 상실하거나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 끝없이 서로를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여성성을 규정 속에 한정하기보다는 작용 속에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범주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2. 몸의 절개와 분리의 전략-김언희의 시

최근까지도 김언희 시에는 ‘크로테스크 시학’ 혹은 ‘기계화된 욕망’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³¹⁾ 김언희의 시가 이른바 의식의 작용에 의해 의미상 관리되기보다는 대상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

31) 이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박성근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박성근, 「김언희 시의 크로테스크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9.

대상이 인식적 통합을 통해 포착되기보다는 순간적인 지각의 작용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그러한 해석의 이유일 것이다. 몸과 그것을 둘러싼 섹슈얼리티³²⁾는 모성성, 유순함 등으로 대변되던 여성성의 범주를 탈피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적극적인 자기 발화의 한 조건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여성시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다.³³⁾

나는야 고양이를/ 겁탈하는/ 쥐// 랄랄랄// 내 인생은/ 피를 보고서야 멈추는
농담// 쥐는 고양이에게/ 사정(射精)한다네// 사정한다네
- 김언희, 「랄랄랄 2」 전문³⁴⁾

성 역할의 전복과 가부장제에 대한 일관된 조롱은 김언희 시가 세계와 대결하는 방식이지만 대칭적인 구조로 드러내는 성에 대한 묘사와 육체에 대한 과장된 자기 인식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분법적 구도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순간의 전복을 통해 혐오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억압의 감정을 해소하는 것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임지연이 인용한 시에 대해 억압과 피억압의 위치 교환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보여주면서, 분노를 폭발시켜 크로테스크한 쾌감을 발산하게 한다고 평하면서도 과다 성욕과 도착적 희열의 근원에는 기존의 성 역할이 보존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그 한계를 지적한 이유는 여기에 있을 것이다.³⁵⁾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전면화하여 오랜 관념으로 자리한 여성성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젠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내용과 형식, 혹은 주제나 방법론만으로 완벽히 설명되어지지 않는

32) 섹슈얼리티(sexuality)는 구체적인 성행위로서 성교 등과 관련된 이미지를 포함한 말이지만, 나아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성적 욕망, 그것을 위한 실천과 더불어 성적 정체성이 만들어내는 취향과 관계, 규범과 심리 구조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사유될 필요가 있다.

33) 성 권력 선점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김현자·이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5호, 한국시학회, 2001, 84면.

34) 김언희,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민음사, 2000, 27면.

35) 임지연, 앞의 글, 103면.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유념할 때에만 그 이외의 지점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젠더 담론과 시적 방법론을 단순 병치시켜 설명하는 것은 문제에 대한 환기를 통해 여성시의 지평을 좀 더 발전적이고 새로운 구도로 이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적 이미지로 복잡하게 구축된 내적 관계망과 그것을 드러내는 감각의 추이까지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인용한 시에서 “내 인생은/ 피를 보고서야 멈추는 농담”이라고 했을 때, 그 피는 ‘고양이’의 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쥐’의 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때, 등장하는 ‘사정(射精)’은 쾌락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공포의 작용³⁶⁾으로 인한 분출로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뒤이어 오는 ‘사정’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물리적 행위를 보여준다면, 앞서 등장한 ‘사정(射精)’은 그에 앞서는 것으로 몸에 의해 즉자적으로 도출되는 생명 보존의 욕구가 생리적 현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접고서, 사정(射精)을 단순히 쾌락의 과정으로 본다고 해도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핀바 ‘피’가 쥐의 것이라면 “고양이를 겁탈하는” 행위가 고양이를 압도하는 힘의 작용으로 생성된 폭력적 행위로 읽히기보다는 쥐와 고양이의 관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저항과 항거의 표현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겁탈’이 ‘농담’인 이유도 여기에 있거니와 유쾌한 노랫말의 흥얼거림으로 보이는 ‘랄랄라’가 반의적 성격을 띠며 그 이면에 자리한 공포와 불안, 고통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 고통으로 읽힐 때, 이 시가 노리는 것이 성 역할의 전복이 아니라 오히려 전복의 불가능성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그 폭력성의 견고함을 증명하는 사례로 뒤바뀌며, 유쾌한 반란을 위시한 절망적 상태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이때 시적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서적 추이라는 유동성 속에서 출렁이며 수행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

36)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곧 공포증이 자기 번식 욕구인 사정이라는 생리적 현상과 관련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공포를 느끼는 부위는 전전두엽으로 공포를 느낄시 편도체의 활성화로 인해 4가지 욕구가 활성화되는데, 식욕, 공격욕, 회피욕, 성욕이 그것이다. 이로 인해 극심한 공포를 느낄시 성욕이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 사정에 이르게 된다고 본다.

이다.

……태어나보니/ 냉장고 속이었어요// 갈고리에 매달린 엉덩짝이 나를/ 낳
았다는데 무엇이/ 엉덩짝인지/ 아무도 모르더군요// 자하식품부/ 확실히 핏 살
코기 정원에서/ 고기가 낳은 고기// ……날 때부터 고기/ 였어요// 육회와 수
육/ 창창한/ 肉切機の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고// 정다운 갈고리 아버지/ 나를
빼어 들고/ 계셨어요

— 김언희, 「태어나보니」 전문³⁷⁾

지평선/ 호텔/ 꼭대기층/ 마지막 방/ 남아빠진 침대 스프링이/ 저 혼자 빼
격이며 자위를 하고/ 당겨올리면/ 착착 맞물려 올라오는 세기말의/ 크리넥스,
아버지, 나는/ 환생한/ 티슈예요// 바르면/ 그 자리에서 짐승이 되는 연고// 작
다고 느껴세요?// 더 긴 시간 원하세요, 해면체 아버지?

— 김언희, 「HOTEL ON HORIZON」 전문³⁸⁾

인용한 두 편의 시는 모두 부정적 이미지의 ‘아버지’가 등장한다. 김언희의 시가 ‘안티 오이디푸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³⁹⁾은 아버지를 대타자의 욕망으로 치환하고 있다는 말과 같다. 그것은 아버지가 욕망 자체로 남아 있다는 말이기도 한데, 「태어나보니」에서 아버지는 절개되어 팔려나가는 여성을 꿰고 있는 갈고리이며, 「HOTEL ON HORIZON」에서 아버지는 지평선 가운데 남근 형상을 한 채 서 있는 호텔 자체로 형상화된다. 「태어나보니」에서는 태어남이 곧바로 죽음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시간적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HOTEL ON HORIZON」에서는 지평선이라는 수평과 호텔이라는 수직이, ‘마지막’인 듯 ‘세기말’의 암울한 공간 속에 교차되고 있다. 각각의 시간과 공간은 첨예하게 나뉘어진 채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양 극단에서 생성되는 이 교차와 어긋남으로 인해 몸은 절개되는 동시에

37) 김언희, 『트렁크』, 세계사, 1995, 63-64면.

38) 김언희, 앞의 책, 17면.

39) 이승훈, 「해설」, 김언희, 앞의 책, 91-102면 참조.

섹슈얼리티의 성격을 띠게 된다. 즉, 이제 육체를 둘러싼 욕망은 개인의 차원에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의 속성과 결부된다. 애초에 김인희의 시에 깔려 있는 정서가 “마음만 섞어도/ 애가 서는”(『산월』, 78면) 교감과 생산성의 자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섹슈얼리티가 겨냥하는 것은 “어디다/ 몸을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절규처럼 황폐화된 세계로 보아야 한다. 그때, 개인과 세계는 통합되거나 무화되는 현상으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시는 오직 존재의 비의와 맞서는 순간을 남길 뿐이다. “해부용이었니…나/ 는?// (중략)/ 이렇게, 절개되기로 되어 있었니?// 오장육부까지/ 꺼내 보여야만 했어?// (중략)/ 이제, 내, 인생이니…… 불합/ 되지 않는?”(『……?』, 62면)이라고 말할 때, 절개된 몸의 대척점에 존재하는 것은, 여성성 혹은 남성성보다도 ‘인생’ 자체이기 때문이다. “얼음답게, 몸 속을/ 드나드는 톱날들을 환히/ 보게 해주마/ 물이 되는 살의 공포, 나를/ 썰음질하는 실물의/ 톱니들/ (중략)/ 얼음톱밥에/ 삶은 피를 끼얹어 먹는 팔방수// 비벼 먹어라”(『얼음여자』, 40-41면)에서도 ‘여자’라는 정체성을 통해 맞서는 것은 ‘피를 끼얹어 먹는’ ‘삶’이라는 관념적 전체성으로 등장한다. 즉, 남성중심적 세계의 견고함이 아니라 그 세계를 허망함과 연결함으로써 대결을 한 차원 더 깊은 곳까지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시가 대결의 선명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에 던져진 개체를 물적 속성, 곧 사물로 바꿔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생’이나 ‘삶’ 혹은 그로 표현된 ‘세계’라는 것이 화자의 감각으로는 짚을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관념의 구성물일 때, 화자가 그에 저항하는 방법은 그 속에 던져진 개체를 물적 속성, 곧 사물로 바꿔놓는 것이다. 인용 시의 ‘고기’ 이미지나 ‘호텔’과 ‘티슈’의 이미지도 그러하지만, “의자였는데/ 내가 앉으니도마였다/ 베개였는데/ 내가베니작두였다”(『의자였는데』, 18면)에서처럼 절개의 이미지가 구축하는 것은 사물화 자체인 것이다. 첫 시집의 표제작 『트렁크』에서 “지퍼를 열면/ 몸뚱어리 전체가 아가리가 되어 벌어지는”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물이 “토막난 추억”인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곧 절개의 이미지가 구축하는 것은 이 세계의 관념적 폭력성과 허망함에 맞서기 위

해 시적 대상을 사물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때, 그 관념성으로 인해 감각적으로 포획되지 않는 세계와 구체적으로 감각되는 자신의 물성 사이를 연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나는데, 김언희 시에서 그 욕망은 섹슈얼리티로 가시화된다. 요약하자면, 김언희 시에서 관념과 사물 사이를 연결하는 것은 욕망이고, 그 욕망을 가시화하는 것이 섹슈얼리티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신체의 잔인하고 극단적인 절개와 시 형식의 파괴는 남성성과 여성성 혹은 제도화된 질서의 폭력성과 거절의 형식을 지닌 욕망의 대척점을 드러내는 데에만 기여하지 않는다. 이는 여성성 이전에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존재의 구체성에 접근하려는 노력으로도 읽히는 것이다. 그 방법론으로 김언희는 몸, 곧 여성의 신체를 사물‘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김언희 시에 자주 등장하는 절개 혹은 절단의 이미지는 그동안 자주 논의되었던바, 섹슈얼리티나 욕망하는 신체를 극대화하여 기성 질서가 가진 폭력성을 가시화하는 한편, 더 깊은 자리에서 잡히지 않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가시화된 실체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거느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성은 부분적으로 성 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존재론적 질문을 가능케 하기 위해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고통일지라도 이 세계의 텅 빈 의미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으로써 자신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사물화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김언희의 시는 아프게 자신을 보존하는 한편, 여성성의 범주를 넘어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3. 결론

사회학적 과정을 통해 포착한다면 이들 시가 선보이는 여성성은 한계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⁴⁰⁾ 따라서 여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에 천착하는 것

40) 낸시 프레이저는 1990년대 이후 정치적 좌파 투쟁이 사그라든 이후, 젠더를 문

이 자신들의 성 범주를 강화한다는 비판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시의 미세한 계기들은 사회학적 과정으로 명료하게 해석되지 않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시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감각에 의해 돌출되는 무의식적 체험의 산물일 것이다. 말하자면 특정 범주에 대한 미학적 천착은 그 범주를 뚫고 나가곤 하는데 그것이 이들 시의 한 면모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희덕의 시에서 ‘뿌리’는 오래도록 모성성의 통로였고, 대지적 상상력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기표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시 「뿌리에게」에서 “깊은 곳에서 내가 나의 뿌리였을 때”라고 말할 때, 너와 나의 관계가 꼭 포함관계로만 읽히지 않는 점에도 주의를 요한다. ‘나’는 “잘 갈구어진 연한 흙”이고 그래서 너에게 나를 흘려보내지만, ‘너’는 ‘나의 뿌리’ 곧 나의 근원을 형성하는 무언가이기도 하다. 그 근원적 힘이 사랑과 포용과 연대의 감각이라는 점은 더불어 인용한 「음지의 꽃」에서 ‘별목 된 참나무떼’와 ‘독버섯’의 관계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미묘한 뒤섞임은 뿌리와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뿌리의 과정이라면 삼투적 성격을 가진다고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삼투가 서로 다른 농도의 뒤섞임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모자(母子)의 것이기도 하지만 생명과 죽음의 것이기도 한데, 더 긴요하게 점검되어야 할 것은 그것이 규정성 아래 놓여 있다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점이다. 나희덕은 그것을 줄곧 식물로의 전이 과정을 통해 드러낸다. 식물은 대지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되는 순간 각자 자신의 의의를 상실하거나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다. 끝없이 서로를 전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성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여성성을 규정 속에 한정하기보다는 작용 속에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범주를 허물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화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들이 등장한 데 초점을 두고, 그것이 분배와 평등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며, ‘길들여진 페미니즘’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223-242면 참조.

김언희의 시는 크로테스크적 시학을 통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전복의 상상력을 보여준다고 평가되어 왔다. 신체 절개라는 과장된 이미지는 섹슈얼리티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방법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태어나보니」에서의 ‘세월’이나 「……?’에서의 ‘인생’에 대한 언급이 그러한 것처럼, 그의 시는 그 바깥에 외부 요인으로서 관념화된 세계를 상징한 가운데 남성성과 여성성을 출현시킨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단지 남성성의 대척점에 여성성을 기입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한 겹 더 두텁게 깔린 세계, 명료한 실체로 표상된 세계가 아니라 ‘인생’이나 ‘세월’로 호명되는 관념적 세계가 상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지점에서 김언희 시의 화자는 자기 자신의 육체를 사물화함으로써 감각적으로 실체화되지 않는 세계의 허망함을 폭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즉, 남성중심적 세계의 견고함이 아니라 그 세계를 허망함과 연결함으로써 대결을 한 차원 더 깊은 곳까지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의 시가 대결의 선명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에 던져진 개체를 물적 속성, 곧 사물로 바꿔 놓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투쟁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편 허망한 세계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고통일지라도 이 세계의 텅 빈 의미로부터 분리되는 방법으로써 자신의 구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를 통해 김언희의 시는 아프게 자신을 보존하는 한편, 여성성의 범주를 벗어나 자신과 세계의 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김언희, 『트렁크』, 세계사, 1995.
나희덕, 『뿌리에게』, 창비, 1991.

2. 논저

- 곽성근, 「김언희 시의 그로테스크 연구」, 조선대 석사학위논문, 2019.
김순아, 「2000년대 여성시에 나타난 ‘몸’의 전략화 양상-김이듬, 문혜진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62호, 한국문학회, 2012, 127-161면.
_____, 「90년대 이후 여성시에 나타난 여성의 몸과 전복의 전략」, 『한어문 교육』 29집,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3, 241-274면.
_____,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빈 몸’의 윤리와 감각화 방식: 이수명, 조용미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연구』 3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69-306면.
김언희, 『말라죽은 앵두나무 아래 잠자는 저 여자』, 민음사, 2000.
김정남, 「90년대 여성 시인의 현실인식과 기법」, 『한국문예비평연구』 17집,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5, 57-87면.
김현자·은정, 「한국현대여성문학사-시」, 『한국시학연구』 5호, 한국시학회, 2001, 65-92면.
나희덕, 『그 말이 입을 물들였다』, 창비, 1994.
박상수, 「한국시의 남성성과 여성혐오의 재현 양상 연구-이소호, 『캐롤링』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63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5-33면.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면.
이경수, 「여성시문학사 서술 방법론 고찰」, 『여성문학연구』 4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60-190면.

- 이경영, 「한국 여성시의 특징적 몇 국면과 미래시학의 방향-페미니즘 관점에
서 1990년대 이후 여성시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39호, 현
대문학이론연구학회, 2009, 91-118면.
- 이기성, 「망각의 언어와 정치적 몸의 탈환」, 『비평, 90년대 문학을 묻다』, 여
름언덕, 2005, 212-235면.
- 이혜원, 「한국 현대 여성시에 나타난 자연 표상의 양상과 의미-‘물’의 표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07호, 한국어문학회, 351-382면.
-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문화적 우울과 불확실한 삶의 조건을 천착하는 철
학자」, 『오늘의 문예비평』 56호, 오늘의문예비평, 2005, 248-278면.
- 임지연, 「‘여성문학’ 트러블-근경에 처한 21세기 여성문학 비평」, 『여성문학
연구』 2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1, 103-132면.
- _____, 「1990년대 여성시의 이상화된 판타지와 역설적 근대 주체 비판」,
『한국시학연구』 53호, 한국시학회, 2018, 85-117면.
- 정끝별, 「여성성의 발견과 <여성적 글쓰기>의 전략」, 『여성문학연구』 5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307-336면.
- _____, 「여성주의 시 연구의 흐름과 쟁점」, 『오륙의 노래』, 하늘언뜻, 2001,
95-112면.
- 낸시 프레이저, 임옥희 역, 『전진하는 페미니즘』, 돌베개, 2017.
-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Abstract】

Study on Process of Decategorization in Women's Poems in 1990's Korea

- Focusing on poems of Kim Eon-Hee and Na Hee-Deok -

Sin, Yong-mok

Poetic opportunities include elements which are not clearly interpreted as sociological process. Although the criticism that delving into self-identity as woman rather strengthens their gender categories is appropriate at some aspect, aesthetic investigation to certain categories often breaks through them.

The exaggerated images from Kim's poems have been understood as a way of driving sexuality to the extreme. The speaker of Kim's poems exposes vanity of a world that is not sensibly materialized, by objectifying its own body. Nevertheless, her poetry does not lose clarity of confrontation because it transforms the object against it into material properties, or the concreteness of objects, which is a strategy of the struggle but also a process of separating itself from the world.

Na's poems have been understood as a signifier of revealing the earth's imagination and transcendence based on motherhood, but the relationships in the poems should be regarded as revelation of the sense of fundamental solidarity that resists violence rather than revelation of the inclusion relation. If the "root," which also appears in the title of her first collection of poems, has an osmotic personality, its mix exchanges concentrations of each other, not only you and I, but also life and death. It is breaking down the definition of existence in that it exists only through the process of endlessly exchanging each other.

Keyword : women's poetry, motherhood, sexuality, category, decategorization

이 논문은 2020년 10월 18일에 투고되었으며, 2020년 11월 11일에
심사 완료되어 2020년 11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